

LG전자는 30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전자는 파트너와 협력해 서해안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수열냉난방시스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비즈 포커스 | 통신3사, '탈통신' 가속도



통신 3사가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우버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2023년까지 콘텐츠에 4000억 원 이상을 투자기로 한 KT가 운영 하는 OTT '시즌', 올해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LG유플러스의 VR 서비스.

“AI 빅테크·디지코로 바꾼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통신 3사가 '탈통신'에 속도를 더한다. 29일 KT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신 3사 모두 새 성장동력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컴퍼니'로,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황현식 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정식 선임한 LG유플러스도 올해 '신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 AI 중심 전환...재휴사 확장
KT, 콘텐츠사 설립 등 사업 재편
LGU+ “새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

●SKT, 초협력 전략으로 자회사까지 ↑
SK텔레콤은 25일 열린 주총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은 “올해를 기점으로 큰 방향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명실상부한 AI 컴퍼니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I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인 이동통신(MNO)을 비롯한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의 상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제휴사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초협력' 전략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회사 가치를 높여 'AI 빅테크'로 진화한다는 설명이다. 11번가를 통해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고, 이베코리아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또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우버와 손을 잡았는데, 4월 1일 합작법인 '우티'를 출범할 예정이다. 윈스토어의 경우 최근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웨이브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한다. 대주주인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자

회사들의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KT, 콘텐츠에 톡톡 투자

KT는 올해 디지코로의 전환을 본격화 한다. 구현모 KT 사장은 주총에서 “올해 본격적인 디지코 관련 사업 확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기업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사업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도 내놴다.

KT는 지난해 말부터 디지코 전환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디지털 커머스 사업 강화를 위해 KTH와 KT엠하우스를 합병하고, 콘텐츠 사업을 위해 전문법인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는 등 사업 재편에 속도를 냈다. 특히 스튜디오 지니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2023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원천 지적재산권(IP) 1000여 개 이상, 드라마 IP 100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총에서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산업'과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도 디지코의 일환이다. 디지털 물류사업과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바이오 정보사업 등을 추진해 디지코 전환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LGU+ 신사업 발굴에 초점

LG유플러스도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올해 신사업 발굴과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B2C 영역에서는 광고·데이터·구독형 서비스 영역에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B2B 영역은 스마트팩토리·스마트모빌리티·뉴딜사업 등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5G 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의 의장사를 맡는 등 새 영역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한 성장 위한 질환별 특화 시스템” 소아청소년과 전문 아이사랑병원 개원

부산 연제구 연산역 인근에 신생아부터 청소년기 환자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병원인 아이사랑병원(사진)이 15일 개원했다.

아이사랑병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가 질병 치료 및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소아성장, 성조숙증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질환별로 특화된 진료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소아 청소년 건강검진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아동발달센터가 있다. 종합검진센터를 비롯한 아동전문 입원실, 내시경실, 방사선실, 영유아검진실, 초음파실, 임상병리실, 수액실 등을 갖추고 있다.

4월 1일 개원하는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감각통합과 놀이치료, 심리치료 등이 보다 질 높은 치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형제들이 함께 방문할 경우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키즈카페도 있다.

호흡기 전문진단클리닉에서는 호흡기·발열 환자와 비호흡기질환자 등 일반 환자의 경로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치료환경을 구축했다. 환자 간, 환자 및 직원 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기환자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최재진 부산아동병원 아이사랑병원 대표원장은 “최적의 진료 검사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해 소아청소년들이 최단기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들이 빠른 예방과 치료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타이어 형제, 주총 표대결 1승1패 지주사 표대결 이긴 조현식 부회장 '판정승' 평가도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타이어 가의 두 형제 간 주주총회 표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지주사와 주력 계열사 주총에서 각각 1승 1패를 나눠가졌다.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표대결에서 이긴 장남 조현식 부회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엔컴퍼니는 30일 주총을 열고 조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이환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른바 '3%룰'의 역할이 컸다. 삼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한국엔컴퍼니 지분은 차남 조현범 사장이 42.90%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19.32%, 차녀 조희원씨가 10.82%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20% 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 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조 부회장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오전 열린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주총에서는 조 사장이 승리했다. 조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 임됐고, 감사위원 역시 조 사장이 추천한 이미라 제너럴 일렉트릭(GE) 한국 인사 총괄이 선임됐다. 조 사장 측 안건은 84%의 득표를 받았다.

김명근 기자

박인주 제니엘 회장, 한국방송대발전후원회장 선임



한국방송대발전후원회는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박인주 제니엘 회장(66·사진)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 박 신임 회장은 경남 포항 출신으로 부산상고와 방송대 경영학과,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제니엘을 설립했다. 제니엘은 HR·교육컨설팅, 인력파견 등 토털 아웃소싱 전문으로 종업원 1만3000여 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반도체 대란’에 현대차도 타격...아이오닉5 판매를까

울산1공장 내달 7~14일 휴업
코나·아이오닉5 생산차질 예상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품귀로 연초부터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고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대차는 30일 “울산1공장을 4월 7~14일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노사 간 긴급회의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에 휴업을 요청했으며 노조는 30일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갖고 내부적으로 휴업 수용 여부를 논의해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2개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1라인은 소형SUV 코나, 2라

인은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생산한다. 코나는 전방 카메라에 장착할 반도체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아이오닉5는 현대모비스에서 납품하는 구동 모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감산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울산1공장 휴업으로 코나는 6000대, 아이오닉5는 6500대 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 직접 반도체 업체와 물량 확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매주 재고를 점검하고 수급 상황에 맞춰 생산계획을 조정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감산 우려가 현실화됐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졌 것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급 불균과 전 세계적 전동화 추세 때문이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자 부품 발주를 줄였고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수요가 증가한 노트북, 태블릿, 기타장비 쪽의 생산을 늘렸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요 회복이 빨라지며 품귀 현상이 극심해졌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경쟁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 한파로 2월 17일부터 오스틴 지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19일 MCU 세계 생산 2위



▲현대차 소형 SUV '더 뉴 코나'

인 일본 르네사스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제는 반도체 수급 해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고 공장 가동 중단이 울산2~5공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감산에 따른 판매 부진 우려에 더해 공급 부족 여파로 반도체 구매단가가 평균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호반그룹, 대한전선 인수로 사업다각화

호반그룹은 30일 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퀴(IMM PE)의 특수목적법인(SPC) 니케로부터 2518억 원에 발행 주식 40.0%를 취득해 대한전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예정 확정 일자는 5월 31일. 지난해에 열린 대한전선 매각 본입찰에서 호반

그룹은 글로벌세아와 인수를 놓고 막판 경쟁을 벌였지만 가격과 성장 방안 제시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대한전선 최종 인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사업다각화를 해왔다”며 “이번 인수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호반그룹과 토목 엔지니어링 수주 확대 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판교서 자율협력주행 전기버스 달린다

KT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 산단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4차 산업 전시제협관, 입주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율협력주행 전기버스도 도입한다. 이 버스는 5G 차량사물통신(V2X)을 기반으로 신호등, 지능형 CCTV, 보행자검지기

등의 안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제주 지능교통관제(C-ITS) 사업에 도입해 효과를 확인한 정밀추위(RTK) 기술도 제공한다. KT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자율협력주행용 전기버스 제작을 위해 전기버스 생산기업 에디슨모터스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팡택AI와 기획 단계부터 협력했다.